

이런에 우뚝한 한라의 영산 / 아리인 정기로 빛아낸 인걸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한라산 허리에 바람이 일며 / 태평양 기슭에 물결이 칠 때
가슴이 뛰는다 제대 건아야
진실 불공 협동과 진취 /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헤치고 나가자 제대 건아야



진리
정의
창조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대표전화 (064)754-2277

news.jejunu.ac.kr

2011년 5월 4일 수요일 제851호

‘한국형 인공심장’ 시대 열리나

제주대 수의대팀 송아지 이식수술 성공



제주대 수의대팀이 주도한 보조인공심장 송아지 이식술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아지는 4일 현재 11일간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조인공심장(Ventricular Assist Device, VAD)을 체내에 이식한 송아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11일째 생존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보조인공심장을 달고 5일 이상 생존한 경우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제주대 수의대팀(이경갑 교수, 정종태 교수, 민병구 명예교수)과 부천 순천향병원의 원운순 교수 등 국내

연구진이 지난달 22일 제주대 동물병원에서 송아지에 보조인공심장(바나나바드, Banana VAD)을 이식, 성공했다. 보조인공심장은 좌심방과 대동맥 혈관 사이에서 좌심실의 기능을 보조하는 장치로서, 환자의 본래 심장과 함께 혈액을 방출해 심장의 회복을 돕는 의료기기다. 또 심장 자체를 대체해야 하는 인공심장 수술과는 달리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이식할 수 있고 본래 심장이 회복되면 언제든 떼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에 사용한 보조인공심장은 제주대 인공심장BT센터에서 제작했다. 이 제품은 제주시와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제품화돼 현재 국내와 미국에서 특허출원 중이다.

이경갑 교수는 “말기 심장병의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각광받는 보조인공심장의 경우, 연구 개발과 생산, 제품화, 임상적용 등이 모두 제주에서 이뤄질 경우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2~3차례 동물실험 후 내년에는 임상실험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보배 기자



유채꽃 물결 ‘출렁’ 지난달 28일 인문대학 2호관 주변이 활짝 핀 노란유채꽃으로 넘실대고 있다.

강보배 기자

제주대 홈페이지 중국어 지원 시급

중화권 유학생 교육편의 제공 미흡해서야
국제교류센터는 내달 중국어·일본어 서비스

제주대 홈페이지에 중국어지원이 되지 않아 중국인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입학안내와 더불어 각종 행사와 학사정보, 장학안내 등이 게시된다. 중국인 유학생이 현재 330명에 이르지만 제주대 홈페이지는 영문 사이트만 개설돼 있고 중국어는 지원되지 않는다.

한국어가 서툰 중국인 유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국제교류센터나 한국인 언어도우미에게 정보를 얻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없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영(사회 2)씨는 “갓 한국여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힘들다”며 “특히 홈페이지 게시물의 경우, 한국어를 잘하는 유학생도 어려워 한다”고 말했다.

국기(관광경영 4) 중국유학생 회장은 “유학생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대학 홈페이지 정보들을 직접 번역해 올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유학생들이 정보습득이 쉽지 않아 피해보는 일이 많은 만큼 홈페이지에 중국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교류센터는 내달 중으로 센터 홈페이지 중국어, 일본어 버전을 개설하고 사이트 어플리케이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강영훈 국제교류센터장은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중국어 사이트 개설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우선 센터 홈페이지를 중·일 버전으로 개설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대학 공지사항

등 정보를 수시로 번역해 올리려면 상근직원이 필요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구글번역기를 대학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글 번역기를 사이트에 설치하면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세계 59개 국가의 언어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김상미(정보통신원)씨는 “중국학생들의 어려움도 공감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중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꼭 개설할 수 있도록 힘쓰고, 번역기 설치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고훈희 기자

“학생 마음 사로잡는 행정서비스 합시다”... 불편사항 게시판 공개

제주대가 친절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달 14일 ‘직원 친절도 향상방안’을 마련했다.

총무과(과장 김선옥)는 그간 지적돼 왔던 각 부서 직원들의 무뎌먹고, 수동적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홈페이지 의견함인 ‘청찬의 소리’와 ‘불편의 소리’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청찬·불편의 소리를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설치해 전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 사항은 총무과가 아닌 해당 부서

장이 직접 처리한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특강’도 오는 5월과 9월에 열린다.

한편, 총무과는 기존에 시행했던 ‘일일 민원 도우미제’가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창기(총무과) 인사팀장은 “이번 친절도 향상 방안을 통해 대학구성원들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리라 기대한다”며 “진정한 친절은 친절마인드 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직무에서도 비롯된다고 생각해

하반기에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방지 위해

안전망 확충 기대

지난달 13일 제주대 정문 앞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내 여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눌(해양산업경영학·2)씨는 “대낮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학교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오화연(중어중문·4)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안감을 느꼈다”며 “앞으로 학교당국과 학생회 측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성범죄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학생들은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에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게시판에는 제주대를 다니는 딸을 둔 한 학부모가 학내 성범죄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용탁 총학생회장은 “학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시험기간이나 축제 기간처럼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방법대를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전국대학이러닝지원센터

중앙본부로 선정

정보통신원(원장 김경연)이 운영하는 제주권역 대학이러닝지원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대학이러닝지원센터 중앙운영본부’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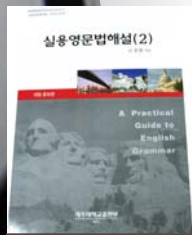
제주대는 운영본부 유치로 매년 1억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고 △대학 간 이러닝 학점교류 추진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1 신간도서 7종 출간



『물권법』은 기존의 교과서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견지하면서도 최근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강조되고 있는 판례이론을 가급적 많이 섭렵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론의 정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논점들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서술하였고, 통설적 견해와 더불어 여러 학설을 소개하고, 판례의 입장을 반드시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저자 김상찬 가격 20,000원



『실용 영문법 해설』 2권. 이 책은 문법 사항들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문법 범주들과 관련된 문법 사항들을 산 영어에서 가려 뽑은 충분한 예문들을 곁들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설하는 책이다. 부정사절과 동명사절, 분사와 분사절, 가정법, 형용사, 부사, 전치사의 구조와 의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고희환 가격 20,000원



『영어어휘 STORY TELLING』은 영어의 단어들 속에 담겨 있는 숨은 이야기들을 영어학습자들이 쉽게 공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흥미롭게 풀어 놓았다. 어려운 문법적 용어들을 가능한 한 배제하면서, 영어 단어 속의 어근과 접사들이 어떠한 의미관계로 결합되어 있는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저자 김재원 가격 15,000원



『친족 상속법』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다. 이 교재는 친족상속법의 전체적인 틀을 쉽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조문과 법조문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여 실질적인 사건에서 관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이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장황한 이론이나 학설은 생략하고 통설 또는 다수설 그리고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저자 고정명·조은희 가격 20,000원



『해사법규(2011 개정판)』은 수산·해양계 대학에서 해사법규를 강의하는 교재용 참고도서 뿐만 아니라, 각급 해기사 및 해양경찰 수험생을 위한 참고도서가 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 8월에 초판을 발행한 ‘해설 해사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해 그 후 개정된 내용과 새로운 법규를 첨가하여 2011년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 안영화·최찬문 가격 20,000원



『해양생산기공공학』은 수산계 대학생, 어업기술자, 수산관계 공무원,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수중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구에 대해서 수리 역학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장서론, 전개판, 어구의 상사법칙, 어구의 어획성능, 어구 계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서두옥·이창현·김병엽 가격 13,000원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학과나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물론 해양경찰에 종사하는 경찰관들과 해양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경찰행정의 일반이론과 더불어 해양법과 해양경찰의 직무를 다루었고, 해양경찰에 관련된 모든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행정법의 일반 이론을 토대로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등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과 해양경찰의 직무와 관련 있는 기초이론, 수사 관련 이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권영호, 고현환 가격 20,000원

사 설

출판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다니

우리 대학교 출판부의 도서출판 예산이 2011학년 도에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10%도 아 니요 20%도 아니라 무려 48.4%이다. 늘린 것이 아니 라 줄인 것이다.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줄였다니, 그것도 절반으로 과감히(!) 줄였다니, 정말 믿기 어 려운 일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사실이 다.

홍보·출판센터에서 지난 4월 5일 362호로 시행한 「2011학년도 도서출판 추진계획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 분명히 나와 있다. 홍보·출판센터 출판부에서 는 공문에서 “전년과 달리 금년부터는 출판신청 접수시기가 연2회에서 연1회로 변경되었다”면서 그 이유를 “출판예산의 대폭 축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작년도에는 4550만원이었던 예산이 2350만원(전년 대비 2200만원 감소)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공문에는 “연구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학문연구와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에 출판부에서 도서 출 간 사업을 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 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도서출판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할 불가피한 어떤 이유가 있다는 말인가?

아마 우리 대학교가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그렇다 고 할지도 모른다. 우여곡절 끝에 인상키로 했던 기 성회비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생때로 동결시킬 수밖에

에 없었으니 어찌됐나고 강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다. 기성 회비가 동결되었다고 학교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교 당국이 출판부의 도서출판 기능을 경 시하는 데 있다고 본다. 잘 팔리지도 않을 그책 책 몇 권 만들어서 뭐하겠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출판예산 절반을 딱딱 잘라버리는 무모한 처사를 이해할 도리가 없다. 그 것이 아니라면 당국은 최소한 작년 수준 정도의 출 판예산을 추경에서라도 배정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작년까지 출판부는 향후에 독립채산제를 염두에 두 고서 도서판매 수익을 적립해 왔다고 한다. 작년 8월 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출판부 업무가 언론출판센터 에서 홍보출판센터로 이관되었는데, 그때 넘겨진 도 서출판 적립금이 약 3억2000만원이라고 한다. 그제 어떤 돈이던가? 저자들(대부분 교수들임)의 인세 요, 출판부 관계자의 땀이요, 도시를 구입한 독자들 (대부분 학생들임)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 던가? 그렇게 애써 모은 그 많은 수익금을 출판진흥 에 재투자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인 가? 이 문제를 당국은 분명히 해명해 주기 바란다.

기본에 충실하자

지금 이 시대에 변화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술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유행 도 변하고, 제도로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 그런 체험이 우리를 압박하기도 한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모든 것을 바꾸자.

그런데 이런 말이 정말로 옳은가.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다. 사람 이외 의 어떤 동물이 진부한 것에 실증을 느낄 수 있을까. 의식이라는 것이 없다면, 진부함이라는 생각 자체도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추 구도 ‘어떤 정도’를 넘어서면, 그것은 미신이 되고 강박이 된다.

기업이나 정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대중적 열광을 최대한 이용하고 싶어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이슈를 제시함으로써 소비를 증대시키고, 정 치적 동원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은 곤혹스럽다. 새로운 것만을 쫓다가 망가져버린 사람들도 드물지 않다.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끝없는 변화의 요구 속에서 개인은 한없이 불안하다. 개인 은 그러한 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가 없다.

대학마저, 대학인마저 그런 강요된 신화에 매몰될 수는 없다. 변화와 새로움의 추구를 부정하지는 않 는다. 그러나 엄정한 비판의 시각을 잃지 않음으로 써, 대학은 그러한 신화가 마땅한 정도를 넘어 미신 으로, 어찌면 광기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책 임을 지고 있다.

이제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도 시선을 돌려야 할 때다. 변화의 강조는 할 만큼 했다. 그 무수한 변화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것,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것 으로 이제 사회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

시선을 돌리면 또 다른 세상도 보인다. 변화 속에 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는 것, 이것 역시도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은 그런 본성이 ‘과학’이라는 이념을 만들고, ‘대화’이라는 제도를 창출한 것이 아닌가. ‘과학’이라는 것이, 혼란스러 운 변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변의 법칙을 발견해 내려는 노력이 아니었던가. 종교는?

무엇이 변화하지 않는 것,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것. 그 무수한 변화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 변화를 을 해명해 주는 궁극적인 알고리즘, 말하자면 ‘기 본’인가. 이제 그 기본을 찾아내고, 그 기본으로 돌 아가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작업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처럼 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그 기본에 대해 탐구한 기록들, 이른바 고전이나 어찌면 경전 마저도 난해하다면, 그런 텍스트들이 기초로 삼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 속에 그 기본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면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하자.” 모 두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 기본 아닌가 ? 시시한 결론인가? 많은 거장들이 거듭 거듭 얘기 했다. 진리는 평범한 곳에 있다고. ‘인사하는 제주대 인’, 이 시대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

방사선 방호물질 ‘올레차’ 개발

제주대 프로젝트팀 - 아쿠아그린텍 이달 완료

유채꽃을 활용한 올레차와 올레 에 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 는 Hope Of Water 프로젝트 팀원 인 이동원 (식품생명공학 3), 고정욱 (컴퓨터교육 3), 류현진(식품생명공 학 3), 박소정(컴퓨터교육 3), 고혜 리(컴퓨터교육 3)학생을 만났다. 이 들은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의 산 학협력 특화교육프로그램인 ‘에듀워 터’에 참가하기 위해 모친 학생들이 다.

“올레를 탐방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올레 패지를 만들어 제공하 고 싶어요.”

이들이 말하는 올레패지는 올레 끈들에게 걸으면서 스마트 폰을 이용 해 올레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제공하고, 올 레차와 그 외 간식들을 묶어 판매하 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올레차는 제주의 맛도 즐기 고 성인병과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와 같이 피폭된 사람을 치료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포부 를 밝혔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

은 아니다. 원래 이들은 차가 아니라 음료수를 만드려고 했으나, 찬물에는 잘 우려나지 않는 유채꽃 특성 때문 에 차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올레차 개발에서는 해조류에서 추출해낸 후 코이단 성분의 비릿한 맛을 없애는데 많은 고생을 했다고 말했다. 또 올레 어플리케이션 제작도 학생들이 제작 경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 려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단계로 가고 있다. 컴퓨터교육과에서 컴퓨터 언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이번엔 스마 트폰에 대해서 공부하다보니 한계가 많았다.

“제주도는 상품화가 가능한 많은 개발자원이 있어요.”

류현진씨는 제주는 청정의 이미지 를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도 브랜드 가치를 충분하다고 답했다. 타지 사 람들에게 제주는 깨끗하다는 이미지 가 각인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팀원들도 제주의 물 뿐만 아니라 관 광자원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을 지도하는 컴퓨터 교육과 조 정원 교수는 올레차와 어플리케이션 의 실제 활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개발과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경험



올레차를 개발하고 있는 Hope Of Water 프로젝트 팀원들. 좌측부터 이동원, 고정욱, 장지태(아쿠아그린텍 이사), 류현진, 박소정, 고혜리.

을 쌓고 함께 노력하면서 얻는 것들 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할 때는 학점, 스펙보다 대학 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더 중요 시해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관심이 있다면 도전하세요.”

취업을 할때, 면접관들이 보는 학 점, 스펙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한 다. 학점은 개인의 성실도를 가능하 는 수단이지, 면접자의 총체적인 평 가수단이 되지 않는다. 이보다 대학 때 어떤 것에 뛰어들어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제주산 감태(해조류) 로 추출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을 이 용해 유채꽃의 역한 향기를 억제하여 유채꽃 차를 만들어 내는 중이다. 어 떻게 하면, 향기를 개선할 것이고 어 떤 용기를 사용할 것인지 고민이 많 다. 이를 통해 이달말까지 차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학회에는 논문을 발표하 고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 혔다. 김명지 수습기자

‘제31회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농협 제주대생 대거 합격



지난달 29일 학생회관 3층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제31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제주대가 지난달 29일 학생회관 3 층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제3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서도 면학에 정진하고 있는 장애학생 들을 격려하는 모범장애학생 시상식 이 열렸다. 제주대에는 50명(재학생

37명, 휴학생 13명)의 장애학생이 있 다.

모범장애학생 시상식에서는 김성 훈(경영 2)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부 위원장이 공로우수상을, 현진욱(행정 2)씨가 성적우수표창을 받았다. 또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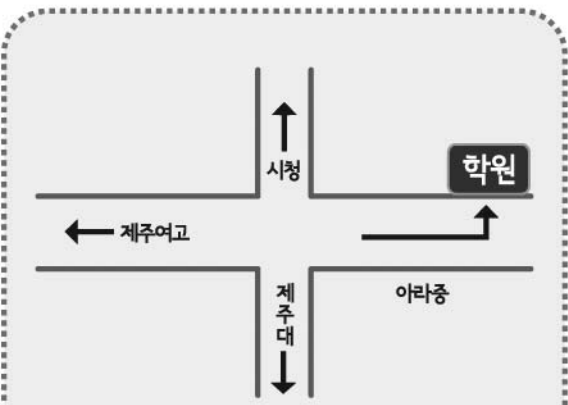
한 부분에 대해 기관장과 대화 시간 도 마련됐다. 건의 사항으로는 △ BTL생활관에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해달라는 것 △장애학생들도 쉽 게 이용할 수 있는 스위치 버튼이 낮 게 설치된 자판기 배치 △장애인 화 장실의 비데 설치 등 다양한 안건들 이 나왔다. 이에 해당 관련 기관에서 는 장애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점진적 교체와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 2008년 장애 학생교육지원 최우수학교로 선정되 기도 했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고호성	편집국장 강보배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 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 제주대 ↔학원 (08:30~17:00)
-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 31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이하여 제 31회 백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1년 5월16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54호(2011년 6월 8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각 부문 당선작(50만원), 가작(30만원)
*단, 작품 수·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함.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병원 소식



지난달 21일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한 인증평가추진 단 발대식이 열렸다.

제주대병원, 인증평가추진단 발대식

제주대병원(병원장 강성하)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 관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수검받기 위해 인증평가추 진단 발대식을 지난달 21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인증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 지속적으로 노 력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 도다.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는 제주대병원은 보건복지 부 평가로부터 인증 받게 되면·서울대학교병원·세 브란스병원 등과 어깨를 견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도민들에게 서울 대형 병원들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 스를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강성하 병원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이번 평가를 통 해 우리 병원을 한단계 끌어올려 제2의 신축을 한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겠다”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이름 높은 병원, 환자 안전을 공인받아 의료사고 없는 병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되자”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 구좌읍 종달리에서 의료봉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대병원 구좌읍 종달리 의료봉사 진행

제주대병원(병원장 강성하)이 제주특별자치도농업 기술원(원장 고성준)과 지난달 9일 구좌읍 종달리를 찾아 의료봉사와 영농기술을 지원했다.

종달리 실버복지타운에서 진행 된 이번 봉사활동에 서 제주대학교병원은 주민들에게 내과, 신경과, 비뇨기 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진료 과에 대한 의료봉사를 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과 지역 농·특산물 가공 건설팀, 농업기계를 수리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건강한 농촌 만들기’ 프로 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해마다 두 차례 농 촌 의료와 농업기술봉사를 하기로 했다.

핵심역량 수업 평가 방법, 기자재 보충 등 개선 필요



한국엑셀러닝 제주지회가 주최한 세미나가 지난달 29일 생명자원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핵심역량 과목 수업의 평가 기준안과 기자재 보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엑셀러닝 제주지회(회장 김홍수 통신공학과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가 지난달 29일 생명자원과학대학 세미나실

에서 열렸다.

엑셀러닝은 기존의 지식전달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이 주제적으로 문제해결과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교수별로 핵심역량 과목 수업의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좀 더 나은 수업진행을 위해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과 질의가 오고갔다.

먼저 수업에 필요한 도구나 강의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책상이 고정된 강의실인 경우 토론수업, 팀별 수업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교재의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어 실제 활동도가 낮고 교재가 비싸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지적됐다.

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교수들은 절대평가가 이뤄져야 학생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평가가 이뤄질 경우 교수들이 평가를 소홀히 하고 자의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무처 관계자는 아직 “절대평가는 평가기준과 전략이 모호해 시행하기에는 이르

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절대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외에도 일부 신입생들이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팀별 학습을 하는 수업의 특성상 한 명의 학생이라도 빠지거나 지각을 하면 수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몇몇 교수들은 본인이 진행하는 수업에서 성비불균형이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대는 전국대학에서 처음으로 엑셀러닝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로 선정됐다. 현재 핵심역량 과목으로는 △대인관계 역량 △자원기술의 활용역량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이 개설돼 있다. 올해 입학한 1학년들은 졸업 전까지 최소한 한 과목은 수강해야 한다.

김명지 수습기자



지난달 22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제1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열렸다.

간호대학 승격 후 첫 나이팅게일 선서식 열려

간호대학(학장 이은주)은 지난달 22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제1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과학적, 전문적 간호를 통해 간호를 전문적으로 발전시켰던 나이팅게일의 간호정신을 계승하고, 학생들의 전문적 간호사로서 올바른 간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지난 3월 간호대학으로 승격한 간호학과는 1997년 12월 20명의 정원으로 신설된 후 1998년 3월 입학정원 20명으로 출발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간호대학으로 승격이 확정됐으며 2011학년도부터 입학정원 70명의 간호대학으로 출범했다.

학생생활관 운동용품·시설 관리 소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셔틀콕들.

학생생활관에서 생활하는 A씨는 좋은 날씨에 친구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학생생활관 자치위원회실에 체육물품을 대여하러 갔다. 그러나 정작 자치위원회실에선 손잡이

가 꺾어진 배드민턴 라켓과 다 망가진 셔틀콕만이 그들을 반겼다.

체육물품이나 시설들이 고장나거나 낡아 입주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김용진씨(관광경영 1)는 “라켓은 부서지고 셔틀콕은 다 망가져서 배드민턴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탁구 라켓도 너무 낡아서 사용하기 불편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생활관의 한 입주생은 “체력단련실의 런닝머신이 고장난지 몇 달이 지나서야 고쳐줬다”며 “고장난 기물을 빨리 수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새로운 체육물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응씨(해양생명과학 1)는 “학생생활관 측에선 관리를 잘 하지만 지

원이 너무 부족해 체육물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체육물품관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치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이다.

학생생활관 자치위원회에서는 “아직 자치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되지 않아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물품을 다시 구입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태완 학생생활관 행정팀장은 “아직 자치위원회가 정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불편하다는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생활관생들이 불편하다면 자치위원회가 아닌 행정실 차원에서라도 교체해 주겠다”고 말했다.

장호주 수습기자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전시회 참여

아열대·방사선연구소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소장 이효연, 이하 아열대 연구소)와 방사선응용과학연구소(소장 김신, 이하 방사선연구소)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성과전시회에 참여했다. 이 전시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렸다.

아열대연구소는 전시회에 제조제 저항성 들잔디, 돌연변이감귤, 돌연변이춘란, 네잎클로버, 꼬마식물 등 5종의 식품을 출품했다. 또 유용형질을 부여하기 위한 유전자조작작물

(GM작물), 돌연변이 식물의 제조원리를 설명하고, 관람객들에게 연구 성과를 홍보했다.

방사선연구소는 이번엔 원자로 내에서의 물과 공기 등 두 종류 이상의 다른 물질의 유동을 가시화해 측정하는 장치인 전기단층촬영시스템, 기포율 검출센서를 출품, 자연해 방사선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얼마 전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가운데 방사능 측정기를 일반인들이 직접 측정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강현실사업단이 세계 7대 자연경관에 투표할 수 있는 이동식AR투표기를 개발했다.

중강현실사업단, 이동식 AR투표기 개발

중강현실사업단(단장 이봉구 교수)에서 스크린 터치 하나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투표할 수 있는 이동식AR투표기를 개발했다.

기존의 전화·인터넷 투표와 달리 본 디지털 투표기는 터치 이외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요즘은 부과되지 않으며 중복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 사진을 기기 내부에서 저장하여 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사진촬영 기능

도 탑재되어 있다. 투표기가 투표화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지난 4월 15~18일 동안 대구북극제관광박람회에 설치돼 총 투표수 4012건을 기록했다.

또 4월 21~24일에는 2011 서울국제사자전영상기자재전에 참가해 총 투표수 6 221건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투표방식에 비해 하루 평균 약 30배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글로벌 메모리를 창조하는 뉴세븐원더스

N7W 버나드 웹버 이사장 강연

‘글로벌 메모리를 창조하는 뉴세븐원더스의 역사’에 대해 버나드웹버 N7W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경성대 2호관 강당에서 특강을 열었다. 버나드웹버 이사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N7W재단의 설립 이유, 신 세계 7대 불가사의 투표의 가치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의 의미 등을 설명했다.

버나드웹버 이사장은 “기원전 2세기에 한 사람에 의해 발표되어 이집트의 피라미드 하나만 남아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바꿔보기 위해 N7W재단과 신 세계 7대 불가사의 투표를 만들었다”며 “지난 2007년 실시한 신 세계 7대 불가사의 투표는

나이, 인종, 국경을 초월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적 자금이나 세금을 쓰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라는 방법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이 참여해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버나드웹버 이사장은 “민주주의란 것이 어떻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지 보여준다”며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투표할 수 있는 전화와 인터넷 투표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 그는 “실제 투표는 지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버나드웹버 이사장

제주대 캠퍼스 지진 안전지대 아니

전체 141개 건물 중 15개만 내진설계

제주대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을까. 최근 일본의 지진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은 국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강하게 조성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올해 들어 3차례 지진이 발생해 도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제주대에는 총 141동의 건물(2011년 3월 1일 기준)이 있다. 이 가운데 15동의 건물만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데 이는 전체 건물 가운데 약 10

%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2005년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상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대 안에는 내진설계 의무화 조건에 해당하는 건물이 모두 56동 있다. 이 가운데 15동의 건물만이 내진설계가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물은 없다. 그 이유는 내진설계를 한 14동의 건물을 제외한 42동의 건물들 모두 건축법이 개정된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최근에 설계된 건물을 제외한 오래된 건물들은 안전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강영현(사학 2)씨는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면 정작 학생들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시설과 이영화 과장은 “이미 지어진 건물들은 예산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내진보강 공사가 힘든 상태”라며 향후에 국가에서 제도적 대책이 나온다면 내진 보강 공사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수습기자

중국대학과 학술 교류 확대 및 유학생 유치 강화



지난달 22일 요양성 다련에서 개최된 제2회 중한 국제교육교류 및 유학생육성심포지엄에 허향진 총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주대가 중국 대학과의 학술교류 확대 및 유학생 유치활동을 진행했다.

제주대는 지난달 17일 중국 시안을 방문, 장안(長安)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학술교류협정은 중국 시안에

있는 장안(長安)대학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 대학은 학술교류, 교수 및 학생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허 총장은 개교60주년을 맞는 장안대학의 교류대학 총장 초청 포럼,

뉴스 클리핑



엘지유플러스 이상철 대표이사(가운데)가 지난달 26일 발전기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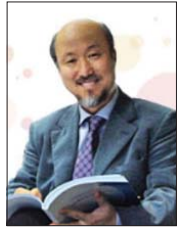
엘지유플러스 발전기금 3000만원 쾌척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 하나가 돼 새롭게 태어난 (주)엘지유플러스 이상철 대표이

사가 지난달 26일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쾌척했다.

이선주 교수, 융합기술대상 수상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의 이선주 센터장이 지난달 22일 (사)한국융합학회에서 2011년 대한민국 융합기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선주 교수

의 높은 벽을 허물고 각 전공들이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선주 센터장은 “상을 받게 된 것은 굉장히 기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과 사이에 융합이 더욱 탄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센터가 하는 일이 산업전반에 고용창출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센터가 만든 시스템을 잘 활용해 자신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취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지도자과정 16기 도서구입비 기증

행정대학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16기(회장 안창준)는 지난달 28일 법정대학 도서관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고영철 법정대학장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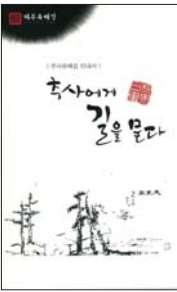
안창준 회장은 “도서관에 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후배들이 구입한 책을 통해 지식을 쌓

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은 법정대학 구라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졸업식에 서도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스토리텔링센터 ‘추사에게 길을 묻다’ 발간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센터장 양진건 교수)가 오는 14일 추사유배길 개봉에 맞춰 안내책자인 ‘추사에게 길을 묻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단순한 길 안내서라기보다 추사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을 추사유배길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는 이 안내책자를 추사유배길 개통식 때 참가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대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는 2010년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협력사업으로 ‘제주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비용 막대하지만 경제적 이익 등 통일편익 더 크다”

‘한반도 통일과 대학생의 역할’ 주제

평화연구소 주최 · 통일부 후원

제주대 평화연구소(소장 고성준 교수)와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는 3일 오후 교양동 4130 강의실에서 ‘한반도 통일과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제주 권역 대학생 세미나를 열고 우리사회의 당면한 통일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제주대 통일문제동아리 회장인 이성군(윤리교육3)씨와 정혜원(교육대학 초등윤리교육3)씨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대웅(윤리교육3), 김수연(행정3), 김수영(정치외교2), 신동원(중문3), 김상현(해양1)씨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 한반도 통일 전망: 대학생의 시각(이성군 윤리교육과3)

대학생들은 남북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약화되는 통일의식으로 인해 후일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사회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막상 통일의 시기가 닥쳤을 때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발생하게 되는 온갖 부담과 혼란들을 떠안게 될 것이다. 반면 통일에 대한 절실한 생

각은 ‘통일의 그날’이 왔을 때 그동안 준비해온 수고와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이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통일이 가져올 편의 중에는 분단비용의 절약이 있다. 그 대표적인 비용은 과도한 군사비인데, 남한의 군사비는 2010년 295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GDP의 3%를 넘는 금액이다. 북한은 극심한 빈곤 중에서도 지난해 59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한은 68만명, 북한은 117만명에 달하는 정규군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국방비 지출이 불가피하다. 통일 후 양측의 군사비는 그 지출이 감소하고 국방 인력의 축소로 인해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유치원과 초·중·고 단계를 포함한 11년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난 이후 교재 및 학습품 구입 등 각종 명목의 잡부금에 대한 부담으로 사실상 의무 교육의 선전과 달리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남한에서도 각 과목

의 교육 전문가들이 북한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만큼 일자리도 늘어나며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고속도로가 전체 도로의 1% 수준이고 비포장도로가 전체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들어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그 자체가 통일 비용으로 드는 항목 하나하나이지만 그대로 일자리가 되어서 돌아온다.

이와 함께 통일은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의 휴전 상태가 종결되고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 동안 징병제로 유지되어 왔던 남북한의 정규군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고 상당수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관광 · 여가 · 문화 서비스의 기회 향상을 누릴 수 있고 학술 · 문화적 발전을 이뤄 좀 더 넓은 범위로 시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학생들은 통일의 문제에 관심을 갖되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 통일 비용보다는 통일의 편익을 바라볼 줄 아는 지성인이 돼야 한다. 또한 군사도발 및 대북 지원 물자를 자신들의 이득 채우기에만 사용하는 북한의

정권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 밑에서 경제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까지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일의 미래 비전을 키워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통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올바른 통일 교육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고 고민하며 통일의 문제가 정말 자신과 관련이 돼 있고 한반도에 살아가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부터 선행해야 한다.

◆ 대학생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정혜원 교육대학 초등윤리교육전공3)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정도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대로의 통일교육이 지속된다면 통일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도 점차 무관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고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통일교육이 시행돼야 한다.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통일교육의 목표와 개념이 수시로 변화하였다는 점 △북한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점 △대학 통일교육의



지난 3일 오후 교양동 4130강의실에서 평화연구소 주최로 ‘한반도 통일과 대학생의 역할’ 세미나가 열렸다.

내용과 체제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의 방안으로 △통일관련 교과 교양필수 과목으로의 전환 △통일 교육 현장 실습을 △활발한 통일 관련 사업으로 학교 및 사회의 체제에 관련된 방안 등을 준비해야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북한이해 교육 △평화 통일 교육 △대북정책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 문화적 측면으로는 △통일에 대한 열린 대화와 토의의 장 제공 △현안 쟁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회적 측면의 방안과 함

께 미디어를 통한 북한의 이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은 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 교육기관은 다른 교육기관보다 더욱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대학의 통일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때다. 미래 통일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은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과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하고,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해야 한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제주대학교(총장 허형진)는 JDC · 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들을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6월 14일까지 총 13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만형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하는 리더십’ 필요

새로운 리더십의 방향과 조건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

첫 직장은 대전의 한 종합병원이었다.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병원생활 중 서울의 모연 구소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어보라는 것이었다. 강연 제목은 ‘WWW(월드와이드웹)’이었고, 이제 ‘W’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다소 황당무계한 주장이었다. 당시만 해도 웹은 개념으로만 존재했지, ‘W’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주장하니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했다. 나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후일담이지만, 그 강연자는 자본금 800만원으로 벤처기업을 만들어 1조원 넘는 회사로 성장시켰다고 한다. 90년대 초에 누구도 믿지 못했던 강연 내용이 현실로 이뤄졌다는 것에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

이 시기부터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이면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했다. ‘통찰’은 표면적 현상들을 과감하게 견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이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스스로 통찰하고 다른 이면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한중도 되지 않는 지식과 정보들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연히 제프리 리프킨의 책을 읽었다. 저자는 인류 문명을 고찰한 결과, 0.1%의 창의적 인간이 인류 문명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들을 가리켜 돈키호테라고 비아냥거렸다. 0.1%의 창의적 인간과 0.9%의 통찰력과 직관을 가진 인간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99%가 잉여인간이라는 것이다.

0.1%의 창의적 인간으로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 헨리 포드를 꼽을 수 있다. 1903년 헨리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기차보다도 비싼데 4명밖에 타지 못한다’라는 대중 언론의 조롱과 냉대가 쏟아졌다. 그러나 포드는 자동차를 부자들만의 것으로 본 대다수 사업가들과 달리 대중들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 값싼 차를 만들기 위해 대량생산이 절실히 필요했고, 결국 1913년 컨베이어식 조립라인에 의한 양산체제인 포드 시스템을 확립했다. 그 시각의 차이가 20세기 역사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당시 고교 졸업 후 조그만 위탁판매 회사에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한 사람이 이 논쟁적인 기사를 읽고 새로운 통찰을 얻어냈다. 그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만 포드의 자동차가 곧 대중화가 된다’고 믿었고, ‘내가 자동차를 만들 기술과 지식은 없지만, 자동차는 기쁨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통찰에 기인해 정유업에 뛰어들었다. 그가 바로 존 데이비슨 록펠러였다. 록펠러는 혼자 힘으로 사업을 일궈고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조직,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0%를 장유하고 판매에 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 0.1%의 창의적 인간은 헨리 포드이고, 0.9%의 통찰력과 직관을 가진 인간은 바로 록펠러인 셈이다.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화는 시간이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흔히 ‘때를 잘못 만났다. 운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시기에 자신이 준비한 것을 모두 발휘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익숙하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에 호기심을 품고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문제는 인행(言行)의 불일치다. 30분 먼저 일어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먼 길을 가더라도 첫걸음이 중요하다. 2000년 초 스스로에게 무엇인가 선물하고 싶었는데 ‘시간’을 선물했다. 2000년 1월 1일을 기해 ‘오금’을 정했다. 바로 술, 담배, 골프, 세상의 모든 유혹적인 것, 도박적인 것 등 5가지를 안하기로 결심했다. 술을 끊으니까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고, 금연을 통해 맑은 생각을 갖게 됐으며, 골프를 안 하면서 주말을 확보하게 됐고, 세상의 유혹적인 것과 도박적인 것에 대한 유혹을 줄이면서 더 큰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Follow me(나를 따르라)’가 아닌 ‘With me(나와 함께)’를 외치는 사람이다. 기존의 리더십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해 앞에서 다수를 이끌었다면, 새로운 리더십은 뒤에서 전체를 밀어주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과거 좋은 스펙을 갖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우리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대는 함께 손을 잡고 팀을 이뤄 주변에 흠여진 것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과 시야를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이 먼저 천 걸음을 앞서가는 게 중요하던 시대에서, 천 명이 손을 잡고 같이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미래를 바꾸는 힘은 바로 ‘긍정 에너지’

창의력으로 승부하라

박종하 창의력연구소 소장



박종하 창의력연구소 소장

창의력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그러면 창의력은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노력에 의해 길러질 수 있는 것일까? 당연히 창의력은 길러질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같아도 정답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 다르다.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 갈 때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우유치럼 유통기한이 있어서 잘 골라서 적용해야 한다. 지식은 시간과 시대에 따라 변한다.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답을 만들어 내야 한다.

창의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얼마나 ‘주도적’이나 하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적이고 수동적이지만, 창의적인 사람은 헨리 포드이고, 0.9%의 통찰력과 직관을 가진 인간은 바로 록펠러인 셈이다. 다. 자기 생각을 주도적으로 내세웠을 때 감당해야 할 욕시 모를 비난이 두려운 것이다. 비난을 감수하시더라도 주도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자리에서나 조명을 받게 된다. 주도적인 사람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어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적 힘이 있다. 주도적이지만 ‘유연한 생각’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평소 고정관념에 휩싸이기 쉽다. 고정관념은 낯선 내린 곳에 배가 머물 듯이 처음 일찍이 정비가 정신적 것으로 작용해 전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람들은 먼저 들어온 생각에 머물러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고정되기 쉽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생각도 쉽게 변하지 않아 고정관념을 통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된다. 어떤 과학자가 거미에 관한 실험을 했다. 그는 거미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쳤다. “뛰어! 뛰어.” 그랬더니 거미는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거미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거미에게 소리쳤다. “뛰어! 뛰어.” 그러나 다리가 부러진 거미는 움직이지 않았다. 실험이 끝나고 나서 그 과학자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거미의 귀는 다리에 있다”고.

또 다른 예를 보자. 나사(NASA)가 무중력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백만 달러짜리’ 불펜을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우주선을 개발하던 때였다. 미국 과학자는 소련 과학자에게 백만 달러짜리 불펜을 자랑하며 소련에선 어떻게 무중력 상태에서 글을 쓰냐고 물었다. 소련 과학자는 ‘연필로 쓴다’고 답했다. 똑똑한 나사 직원들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바로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패턴대로 생각한다. 그 패턴을 당연하

게 생각하고 뻔한 문제도 실수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척 보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소개한다. 1975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을 불렀다. 오일달러가 넘쳐나는 중동국가에서 건설공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다른 국내 기업가들은 중동지역이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 없고, 건설공사가 필요한 물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답을 한 뒤였고, 미션을 받고 한달 음에 중동에 다녀온 정주영 회장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그곳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공사하기 가장 좋은 땅입니다. 1년 12달 비가 오지 않고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에 필요한 모래자갈은 현장에 많이 있으니 자체 조달이 쉽습니다. 물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그거야 어디서 실어오면 됩니다. 50도나 되는 더위는 낮에 천막 치고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1970년대를 상징하는 중동 붐은 이렇게 시작됐다. 정 회장 말대로 한국 사람들이는 낮에는 자고, 밤에는 햇볕을 들고 일을 했다. 세계가 놀랐다. 달러가 부족했던 그 시절, 30만 명의 일꾼들이 중동으로 몰려나갔고 보잉 747 특별기편으로 오일달러를 싣고 국내로 들어왔다.

유연한 생각을 가지려면 긍정의 힘이 중요하다. 어려움을 불가능의 차이는 시간이 더 걸리면 어려운 것이고, 내가 포기하면 불가능한 것이다. 부정적 생각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반면, 긍정적 생각은 나의 빛나는 성과를 만든다.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자기긍정과 자신감이다. 지금 우리는 불신과 불만보다 긍정과 희망을 얘기하고, 소문과 화합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믿는다. 자신을 둘러싼 건물이 단지 장애물이나, 디딤돌이나 하는 것은 건물의 차이이다. 그렇지만 그 작은 차이가 브랜드를 만들고, 성공을 이끌어 낸다. 삶을 긍정하는 에너지!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한반도, 미 · 중 방어선의 ‘불안한 교차점’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문정인 연세대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우리는 중국이 어떠한 야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다. 중국은 위협적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은 반사적 정치를 하는 것일 뿐 공격적 정치는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 중국을 정확하게 바라보려면 3가지를 보면 된다. 중국이 패권국가로 등장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중국 지도자들의 의도는 어떠한가? 능력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등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지난 2009년부터 세계 수출 1위국가였다. 지난해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국가가 됐다. 뿐만 아니라 외화 보유고가 세계 최고다. 중국은 경제력은 물론이고 군사력을 비롯해 문화력에 있어서도 2·30년 내에 미국을 제치거나 동등한 위치에 올라설 것이다. 사실상 중국의 급작스런 부상은 ‘중국 위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다.

반면 중국 외교부 공식라인의 입장은 대국으로 성장을 하되 주변국과 평화를 지향하는 ‘화평굴기’로 정리된다. 공산당 지도부들은 중국 공산당의 목적이 패권국가, 지도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반면 경계해야 할 중국내 여론도 존재한다. 중국을 흔히 닫혀 있거나 교조적인 사회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대국으로 성장하면 어느 정도의 패권주의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대국굴기론’이 자연스럽게 공존한다.

중국에서는 자국의 가장 큰 위협도 미국이고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도 미국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한중 관계를 더는 대등한 관계로 보고 있지 않다.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라는 인식이 학자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30·40년 후 중국은 우리에게 사활적인 존재다. 우리의 미래가 중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만도 4만개가 넘는다. 매년 중국에서 발생하는 흑자로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를 메우고 있다. 중국 중산층이 4·5억 명으로 성장하면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한반도 안보문제에도 중국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써 와일드카드를 갖고 있다.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가져가면서 안정을 구축하는데도 중국은 중

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많은 동북아 전략구상의 변화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진 듯했다. 그러나 연평도, 천안함 사건 등에서 중국은 한국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의 한중관계를 일부에서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보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원치 않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현상유지’가 중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내의 일부에서 불거져 나오는 ‘북한 조기 붕괴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한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시각차가 정책 마찰을 빚어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 반중 정서 등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그만큼 중국을 잘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빠르게 변하는 중국이 어떤 모습인지 중국 스스로 내는 목소리를 판단 근거로 삼는 연구가 더 많아져야 한다. 서구의 시각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중국을 이해하는 지배적 인식 틀이 돼서는 안 된다. 한미일 위주의 편승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는 미 · 중 방어선의 불안한 교차점에 놓여 있다. 미국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역할도 중요하다. 제주의 미래도 중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인 관광객을 능가했다. 버자야그를 같은 중국계 화교자본이 제주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제주에 좋은 인상을 갖고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여건을 활용해 제주가 한중관계 개선에 건인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은?

학술기고

암흑 우주: 우주론의 황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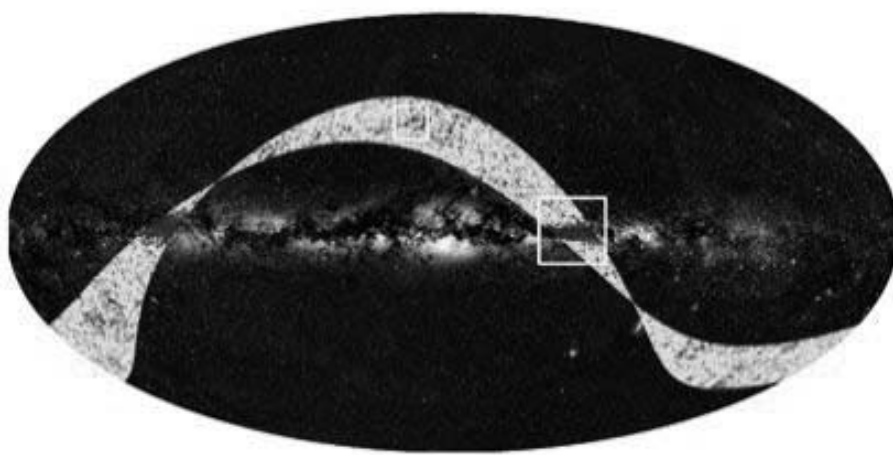
2009년 한국에서 나로호의 성공적 발사를 위하여 한창 준비하고 있을 즈음 같은 해 5월 14일에 유럽우주항공국(ESA)은 남미 프랑스령 가이아나(French Guiana)에서 PLANCK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쏘아올린 후 삼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PLANCK 위성은 대폭발(빅뱅) 이후 퍼져나온 초기 우주의 빛(우주배경복사)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NASA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주배경복사 관측(COBE와 WMAP) 이후 유럽에서 관측을 수행하는 첫 위성이다. 우주배경복사는 1965년 펜지아스와 윌슨에 의해서 최초로 측정된 이후 정상상태 우주론을 대신하여 대폭발(빅뱅) 이론이 표준우주모형으로 자리를 잡게 만든 초기 우주의 유물이다.

현대우주론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펜지아스와 윌슨의 우주배경복사 관측으로 본다면 WMAP과 PLANCK 위성의 우주배경복사 관측 실험은 “정밀 우주론시대” 혹은 “우주론의 황금기”를 여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우주에 대한 관심은 인류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을 만큼 오래됐지만 관측과 측정 기술의 한계로 형이상학적인 담론을 나누는데 그쳤다. 지금부터 겨우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우주론 연구를 한다는 것은 과학을 한다기 보다는 뜬구름을 잡는 식의 연구로 치부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주론 연구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톰코어의 모형과 허클베리핀의 모형으로 잘 알려진 마크 트웨인은 “사실(Fact) 앞에서 이론(Theory)은 그저 공허할 뿐이다”라고 했는데,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관측과 실험의 조화없이 단지 이론적인 모형 연구를 했을 때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우주(宇宙)의宇는 공간(space)를 뜻하고宙는 시간(time)을 뜻한다. 서양에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이 나온 이후 상대적인 시공간 개념과 시공간의 휘어짐이 중력을 기술함을 알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우주론 연구가 시작된다. 방정식으로부터 얻은 팽창하는 우주의 해 등은 정적인 우주보다는 팽창하는 우주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팽창하는 우주 모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기 우주로 거슬러 올라가면 특이점을 만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멀어지는 은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본디, 골드, 그리고 호일 등에 의해서 제안된

정상상태 우주론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 모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특이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상상태 우주론은 멀어지는 은하와 균질·등방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들이 계속 빈공간에서 생겨나야 한다.

대폭발 모형과 정상상태 우주론 모형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펜지아스와 윌슨의 우주배경복사 관측을 통해서 두 모형 사이의 경쟁은 대폭발 우주 모형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정상상태 우주론은 우주 전역에 펼쳐져 있는 우주배경복사를 설명할 수 없다. 우주배경복사의 관측은 우주론 연구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는데,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대폭발 우주 모형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PLANCK 위성이 측정한 첫 우주배경복사 지도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i) 왜 우리 우주는 편평한가? ii) 왜 처음에 인과관계에 놓여있지 않던 두 지역의 복사 온도가 지금은 똑같은가? iii) 어떻게 균질하고 등방적인 우주에서 은하와 같은 거대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등 대폭발 모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

대폭발 모형의 문제점은 1980년 알란 구스가 인플레이션 모형을 제시하면서 해결을 띄워 직접 우주배경복사의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기획하게 됐고 1989년 COBE 위성이 최초로 우주배경복사 온도를 측정하게 되었다. 인플레이션 모형은 COBE 관측의 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재까지 표준우주모형은 인플레이션 모형 + 대폭발 모형의 조합임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주론 연구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던 20세기 말-정확히 말하면 1998년- 또 한 번 전세계 우주론 연구자들을 놀라게 하는 초신성 관측결과가 발표된다.1)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현재 우리 우주는 인플레이션 시기처럼 다시 가속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표준우주모형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당시까지 우주는 95%의 암흑물질2)과 5%의 관측 가능한 물질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이와 같은 물질분포로는 가속팽창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 새로운 딜레마였다. 새로운 가속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를 도입할 필요가 생겼고 그 정체를 모르는 에너지원을 암흑에너지로 부르고 있다. 현재 우주의 가속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70%의 암흑에너지, 25%의 암흑물질, 그리고 5%의 관측 가능한 물질 분포를 가져야 한다. 즉 95%의 우주

구성물질은 아직 그 정체를 알 수 없고 관측도 안되는 물질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우주를 ‘암흑 우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이 새로운 가속팽창 현상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관측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예정 중에 있고 이론적으로 암흑물질은 물론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초끈 이론, 입자물리, 양자장 이론, 천문학, 우주론 등)의 물리학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을 “우주론 연구의 황금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사실(Fact)이 없는 이론(theory)이란 얼마나 공허한가를 경험하게 해준 시기라고 볼 수도 있다.

우주론 연구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해갈 것이라도 예측할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지구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는 유럽 CERN의 거대양성자가속기(LHC)에서 얻을 수 있는 14TeV3)이다. (현재까지는 7TeV까지 도달했다.) 이 에너지는 양성자가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을 때 얻을 수 있다. 이보다 높은 에너지는 당분간은(아마도 앞으로도 상당

히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구현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보다 높은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입자들을 연구하기 위한 대안은 초기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양자 중력이론이나 초끈 이론같은 물리의 근본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고에너지가 필요하고 초기 우주에서는 이런 근본 물리 이론들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근본 물리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초기 우주에서 시공간의 요동으로 생긴 중력파를 측정할 수 있다면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폭발 시점의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력파의 세기가 너무 미약해서4) 아직까지 직접적인 측정엔 실패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점점 정밀도를 높여가면서 중력파를 측정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유한한 빛의 속도로 인해서 인과율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근본물리 이론연구에서는 단일 우주(Universe) 외에 다중 우주(Multiverse)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이론이 맞다면 어떻게 인간의 인식한계를 벗어나는 다른 우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 만일 빛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에너지에 의존한다고 하면 (즉 로렌츠 대칭이 깨진다면) 우리 인식영역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현재 우주의 가속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에 특정한 중심은 없다는 코페르니쿠스적 원리를 버리고 우리 은하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현재 우주론 연구를 통해서 제기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단지 물리학의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 1) 과학전문잡지인 SCIENCE지 1998년 12월호 표지에 “올 해의 대발견”으로 소개되고 있다.
- 2) 암흑 물질은 다른 입자들과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검출할 수 없다.
- 3) 1eV (전자볼트)는 1V의 전위차가 걸려 있는 곳에 전자가 놓여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이다.
- 4) 중력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m 길이의 정도의 길이 변화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고석태(과학교육과) 교수

지역예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탐색한 역저

김병택 저 『제주예술의 사회사』 상·하

서평

김병택 교수의 『제주예술의 사회사』가 드디어 완간되었다. 작년 3월의 상권에 이어 이번에 그 하권이 출간된 것이다. 『제주예술의 사회사』는 『제주작가』에 2008년 봄호부터 3년 동안 연재했던 내용을 깊고 보편 것인바, 그 기간지의 편집시간으로 있으면서 연재를 부락했던 나로서는 이 저서의 출간을 더불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예술의 사회사』는 제주의 예술을 사회사의 시각으로 서술한 저서다. 상·하권을 합하여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몇 가지의 전체적 사항’을 짚은 후에 ‘일제강점기 제주예술의 성격’, ‘한국전쟁과 제주예술계의 형성’, ‘4·19혁명과 제주예술의 전개 방식’, ‘시대인식의 심화와 제주예술의 확대’(70년대), ‘민중화운동 시대의 제주예술’(80년대), ‘IMF사태와 제주예술의 다양성’(90년대 이후) 등 시기별로 제주 근·현대 예술 100년의 구체적인 양상을 기술하였고, ‘전망과 남은 과제들’로 마무리하고 있다. 문학·미술·연극·사진·음악·건축 등이 망라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1인의 필자가 예술사를 쓴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것은 한 개인이 여러 장르를 두루 섭렵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김 교수는 그런 지난한 작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제주현대문학사』(2005)를 펴낸 데 이어, 『현대시의 예술 수용』(2009)이라는 저서에서 ‘시의 그림 수용’, ‘시의 무용 수용’, ‘시의 영화기법 수용’, ‘시의 음악 수용’, ‘시의 건축공간 수용’ 등을 다루었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2005~07)을 지냈다는 그의 이력은 찬찬히 준비하여 역량을 쌓아온 데 따른 결실임을 말해준다.

이 저술은 사회 현상과 결부되는 예술 흐름 중에서 특징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그것을 서술의 초점으로 삼은 점에서는, 다른 예술사와 유사하다. 그러나 예술사의 내용을 기록·대담 또는 혼합의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시기마다 특기할 만한 예술가들의 활동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면모를 보인다. 특히 김광추·송근우에 대한 증언, 김승택의 회고, 현기영·강문철·김석운·정일홍 등과의



『제주예술의 사회사』 상·하 김병택 교수 지음

대담과 같은 구술사적 작업들은 종래의 예술사가 고수했던 엄숙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는 의도된 전략이다. 이에 대한 김 교수의 진술은 의미심장하다.

“회고 내용이 예술의 사회사에 수록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듯하다. 오랫동안 공식적인 내용만을 서술하는 예술사(또는 개별 장르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점잖은 내용, 고상한 내용만을 다루는 예술사는 고작 경직되고 메마른 예술사의 껍질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상권 173쪽)

조직·단체·행사 중심의 예술사로는 예술과 예술가의 진수를 전해줄 수 없다는 신념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이런 신념은 김 교수에게 “해안가에 설치된 조망대에 앉아서 제주예술의 사회사라는 역사의 바다를 응시하는 자세를 포기하게”(같은 쪽) 했다. 실제 이 저술을 위해 김 교수가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며 열정을 쏟았는지 나도 조금은 알고 있다.

김병석과 이광수의 논쟁을 발굴하여 정리한 점, 변시지의 후기 작품을 생태 상징주의로 규정한 점 등은 『제주예술의 사회사』의 또 다른 성과다. 김광추·변시지·현종화·양창보·강요배 등에 대한 논의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개별 작가론으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각 장의 앞부분에 기술된 사회적 상황과 뒤이어 나오는 예술현상들이 유기적으로 엮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결코 결코 이 저술의 커다란 성과를 훼손할 수는 없다.

김 교수의 이 저서 간행은 문화사적·학술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그만큼 어느 누구도 당분간은 따라하지 못할 작업을 그가 했었다고 보는 것이다.

김동윤(국어국문학과) 교수

청중과 두루 시선 마주치고, 자신감과 준비 충분해야

프리젠테이션 달인 되려면

두근두근. 마른침이 목구멍을 넘어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주룩 흐른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 끝에 매달린 다듬겨리는 목소리는 처량하다. 프리젠테이션(이하 PT)을 처음 해보는 사람은 누구나 겪는 상황이다. 대학생이라면 PT를 더이상 피할 수 없지만 청심환도 듣지 않는다는 PT 올림중 때문에 학생들은 근심에 빠진다.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 PT의 달인들을 만나봤다. 그들이 전하는 PPT(파워포인트) 디자인 기법과 흡입력 있는 PT의 노하우를 들어보자.

화려한 PPT 디자인은 오히려 독

초보 발표자들은 욕심을 부린다. 포인트를 준다며 한 화면에 여러가지 색으로 강조하고 사진도 다닥다닥 붙인다. 그러나 사실 이런 PPT는 청중의 집중을 떨어트리는 최악의 PPT다.

김경주(기초교육원) 연구원은 학생들이 PPT를 너무 멋지게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PT 초보인 학생들은 화려하고 예쁜 디자인을 선호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화면이 너저분하면 청중이 주제를 빨리 인식할 수 없고, 화면만 바라보게 돼서 소통이 단절된다”고 설명했다.

화면은 중요 주제만 나타내고 청중과 대화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연세대 등에서 PT관련 강의를 한 대학생 강연가 김중오(행정 4)씨는 생활 속에서 PPT디자인을 찾는다.

김씨는 “PPT 디자인은 일상”이라며 “TV 프로그램과 광고, 잡지 등에서 색감과 디자인을 관찰하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 화면에 3색 이상을 사용하지 말고 폰트도 예쁜 것보다는 가독성이 좋은 ‘윤고딕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요란한 애니메이션은 군더더기

“휘익~ 뽐!” 요란한 효과음과 정신 사나운 애니메이션은 왕초보 발표자들이나 하는 실수다. 애니메이션은 강조할 부분에만 사용하는 것이지 전체 슬라이드에 적용하는 게 아니다.

지난해 기초교육원 학습법공모전에서 발표자료를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김중동(컴퓨터교육 4)씨는 “애니메이션은 거의 쓰지 않는 편”이라며 “요란한 애니메이션은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백 마디 글보다 사진과 영상

프리젠테이션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때로는 길게 늘어선 글보다 하나의 사

진, 영상, 음악 등이 청중의 시선을 더욱 사로잡는다.

김경주 연구원은 “발표는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니라 공감을 얻어내려는 것”이라며 “글을 장황히 쓰는 것보다 발표주제에 맞는 영상, 음악이 더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중동(컴퓨터교육 4)씨는 미래사회를 주제로 발표했었는데, 미래사회를 가상으로 꾸민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들어 PT에 활용했다고 한다. 김씨는 “동영상에 담긴 스토리는 글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다”며 “동영상은 듣는 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어 좋다”고 설명했다.

이미지를 찾을 때에는 국내 검색포털보다 구글 등 해외까지 검색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좀더 다양한 사진과 고화질의 사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중과 소통이 중요하다

청중은 발표자의 눈을 따라간다. 발표자가 스크린을 보면 청중도 스크린을, 발표자가 청중을 보면 청중도 발표자를 본다. 때문에 발표자는 스크린만 바라보다 글줄을 줄줄 읽어서는 안된다. 청중이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발표를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스크린이 아닌 청중과 눈을 마주치고 소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슬라이드에는 글을 너무 짧고 적어놓지 말고 핵심만 적어놓자.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가 이해한 다음에 청중에게 말로 설명해야 한다. 빼곡히 글이 적혀진 PPT를 내놓으면 청중은 화면만 보고 발표자의 말에 잘 집중하지 않는다. 또 발표 내용에 대해 청중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답변을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작은 선물은 청중을 내편으로 만든다

발표 주제와 관련된 퀴즈를 내고 초콜릿 등 작은 선물을 하는 것도 좋다. 사소하지만 청중은 발표자의 성의를 보게되고, 호감을 가지고 발표에 집중하게 된다.

김중오씨도 발표에서 선물을 자주 제공하는 편이다. 그는 한 수업에서 책 10권을 선물한 적도 있다고 한다. 김씨는 “발표 초반에는 작은 선물을 주고 마지막에 조금 큰 선물을 주는 것이 더욱 청중을 발표에 끌어들이 수 있다”며 “발표도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말했다.

좋은 발표자는 청중을 편하게 만든다

MS사의 MVP(온·오프라인 지식나눔 공헌도에 따라 시상하는 상)를 꿈꾸며 학생들에게 무료로 PPT, PT 강연을 하고 있는 김승기(경외 4 휴학)씨는 발표현장에 일찍은 청중들과 대화를 나눈다. 편하고 친근한 대화로 청중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다. 김씨는 “발표를 듣는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발표 오프닝은 쉬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 로보처럼 뻣뻣하게 서서 발표하는 것



대학생 강연가 김중오(행정 4)씨가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보다 적당한 체스처를 취하면 발표가 자연스러워진다. 발표도 일종의 대화다. 대화할 때 상대방이 경직된 몸으로 마주한다면 누가 쉽게 대화에 빠져들겠는가.

철저한 준비는 자신감을 키운다

누구나 처음 청중 앞에 서면 떨기 마련이다. 청심환도 소용없는 PT 올림중을 앞머리면 반복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발표대본을 연습하고, 발표경험을 꾸준히 쌓는 것이 중요하다. 초보와 고수의 차이는 누적된 경험에서 비롯된다.

자신감이 있어서 발표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돼 있었어서 자신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PT관련 수상경력이 화려한 김중오씨도 처음에는 말을 더듬어서 고생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제가 맨 처음 만든 PPT를 보고 한 학생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며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기 마련이지만 경험과 연습이 쌓이면 좋은 발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중동씨도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발표 연습만 30번을 넘게 했었다”며 “발표 당일에는 핵심 키워드를 적어서 갔는데 떨려도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함박웃음’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제주여행

Good Morning! Korea!

지난 1일 우도와 성산일출봉 일대에서 ‘Good Morning! Korea!’ 행사가 열렸다. 부제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제주여행’.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후원하고 YWCA(Young Women Christian Association)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와 대학생 자원 봉사자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즐거운 여행길에 기자가 동행했다. 그들의 행복한 여행을 함께 따라가 보자.

<편집자주>

버스는 바빴다.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일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픽업해야 했기 때문이다. “버스 여기 도착했는데 지금 어디세요?” 약속장소에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참가자와 통화하던 스테프의 눈이 커진다. “자전거 타고 오신다고요?” 잠시 후, 바다와 접한 시골도로를 유유히 달려오는 자전거가 보였다. 중국인 쑤쑤후 이씨다. 자전거를 아무데나 세워 놓는 모습이 한국인 스테프들은 “저거 분명히 누가 훔쳐갈 텐데” 전전긍긍. 그러나 정작 자전거 주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결모습만으로는 국적을 구분하기 힘든 동양인. 그러나 불안한 듯 남겨진 자전거를 자주 돌아보는 한국인들과 대비되는 그의 느긋하다 못해 초탈하기까지 한 표정에 새삼 실감한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 왔구나.

Good Morning! Korea!

행사에 참가한 신경인 제주YWCA 회장은 본 행사를 두고 “평소에 힘들게 일하시는 제주의 외국인 근로자 분들께 하루 동안 즐거움을 선사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행사에 참가한 봉사자들에게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올바른 시선을 가질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제주여행은 이미 여러 해 계속돼 온 행사다. 제주에서 6년을 살았다는 인도네시아 수나르코 씨는 YWCA의 프로그램 덕에 이번 행사를 포함해 제주 관광을 5번이나 다녔며 만족감을 표했다. 제주 YWCA는 이전에도 제주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없던 시절 이주여성들을 위한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영어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영어, 참 중요하다. 특히 대한민국은 멋들어진 영어발음 한 어절만으로 그 사람의 대외정체성이 좌지우지되는 나라 아니던가. 영어만능주의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기자가 한 번 천혜봉 요량으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Can you speak English?” 베트남 청년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진다. “에



지난 1일 우도와 성산일출봉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제주여행 ‘Good Morning! Korea!’가 진행됐다. 즐거운 표정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위)과, 성산일출봉에서 찍은 단체사진.

? 인지? 뭐?” “No, No, English. English! 영.어! 영.어!” 그의 일갈. “아 그냥 한국어로 해요 한국어로.”

몇 년을 제주에서 보내 잔뼈가 굵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잘했다. 그런데 영어는 몰랐다. 어딜 가서 누구 만나든 영어만 할 줄 알면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던 한국인 참가자의 걸쳐쇼크는 제법 컸다.

자원봉사로 참가한 김미진(화학 1)씨는 “스리랑카나 베트남 같은 곳에서도 인도처럼 영어를 당연히 쓰는 줄 알았는데 놀랐다”고 말했다. 행사 현장에선 그 흔한 토익점수 보기도 도리어 김미진씨의 중국어 회화능력 과 손에 들린 베트남어 회화 책이 빛을 발했다. 나머지 봉사자들은, 뭐, 팔다리로 대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어딜 가든 영어는 예외가 있다. 하지만 바디랭귀지는 예외가 없다.

8282 안 좋아요

중국,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은 다양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정하게 느긋하다는 것!

자꾸만 행렬에서 뒤쳐져 사진을 찍거나 풍광에 흠뻑 빠져드는 참가자들의 행동에 수시로 인원을 점검해야 하는 봉사자들은 애가 달았다. 빨리 일행들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재촉하니 인도네시아 청년은 하얀 이를 드러내며 “괜찮아 괜찮아. 빨리 안 가도 돼요.”라고 웃기만 한다. 하긴, 어차피 길이 하나뿐이니 미아가 될 일은 없다. 게다가 모처럼 일터를 떠나 바람 쐬려 놀러 나왔는데 시종일관 초조하고 불안해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미안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거든요.” “어우, 8282 안 좋아요~” 이국 청년이 질린다는 얼굴로 손사레를 치는데 앞선 행렬에서 스테프 한 명이 뛰어온다. “빨리빨리 안 오고 뭐해요!” 기막힌 타이밍에 다같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여러분들 참 행복해 보여

그들은 시종일관 즐거워했다. 성산일출봉의 드넓은 벌판과 우도 등대에서 내려다보는 탁 트인 전경에 연신 탄성을 내질렀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많이, 더욱 환하게 웃게

만든 건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었다.

“자! ‘으랏차차’를 더 크게 외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외쳐주세요~ 으랏차차!”

“으랏따파!” “우라타타!” “으랏타차야!” “으랏차차자자자자!!” 동료들의 어눌한 발음에 폭소를 터뜨리는 그들의 모습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호칭의 씁쓸함에 괴리감을 느끼게 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면 보통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허리 하나 제대로 펴기 힘든 먼지로 찬 닭장 같은 화색공장에서 죽어라 일만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밝다. 봉사자들에게 먼저 다가와 한국어로 통성명을 하고, 어깨에 팔을 둘러 같이 사진을 찍으며, 자기를 뚝으로 제공된 바나나나 초콜릿을 학생들 먹으라며 나눠준다.

자원봉사자 문효진(화학 1)씨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솔직히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종일 같이 있어보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일찌감치 외국인 근로자들과 핸드폰 번호까지 교환했다며 들뜬 얼굴로 자랑까지 한다. 옆에서 친구인 미진씨도 “동남아시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어렵잖아 알 것 같아요”라며 한 마디 거들었다.

기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에 대한 기존 인식과 충돌해야 했다. “숨기지 않아도 돼요. 뭔가 문제가 있다면 전 오히려 고걸 알고 싶은 거니까. 제주에서 일하는 거 힘든진 않으세요?” 기자는 사회 전반에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필자는 뭐 하나라도 문제요소를 발굴해내야 된다는 서투른 의무감에 불타올랐다. 하지만 이게 웬걸. 거꾸로 들고 팔팔 털 기세로 물고 늘어져도 진짜 불안 한 톨 없었다.

인도네시아 청년 미스바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다. 일요일은 매주 쉬고 한 달에 이를 휴무가 있다. 일이 많아 힘든 감이 있긴 하지만, 식사든 산재보험이든 다 잘 돼있어서 생활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또 제주도민들 역시 차별 없이 인간적으로 대우해준다고.

“진짜 안 힘들어요? 고향 안 가고 싶어요?” “언제든 갈 수 있어요. 미리 말만 하면 돼요.” 동료들이 다가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의 직장을 옹호했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까맣게 빛나는 웃음이 우도의 바닷바람에 실려 만파로 퍼졌다.

돌아오는 버스 안, 열렬결에 인도네시아 청년 수나르코와 술악숙이 잡혔다. 그런데 당시 무슬림 아니었나요. 점심 때 돼지고기도 안 먹더니. “1병은 돼요. 안 취하면 돼요.” 그는 애교있게 웃었다. 아, 끝 모를 분방함이며. 까맣고 땀방한 일꾼 피부, 만세!

김은실 수습기자

만화로 배우는 제주어

글/ 김순자 국어문화원 연구원
그림/ 허용준 특별기자



‘만화로 배우는 제주어’ 연재 시작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 위기의 언어’로 등록됐습니다. 제주대신문에서는 대학구성원들이 제주어를 사랑하고 익힐 수 있도록 ‘만화로 배우는 제주어’를 마련했습니다. 851호부터 연재를 시작합니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북경/만리장성 4일

제주-북경-천안문광장-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

상해/항주/소주 4일

제주-상해-소주-정안-항주-서호-황포강유람선-외탄야경

상해/장가계 5일

제주-상해-장가계-천자산-보봉호-황룡동굴-백룡엘리베이터

일본

동경/후지산 4일

제주-니리타-와쿠타니계곡-하코네유람선-긴자거리-신주꾸거리

오사카/나라/코토 4일

제주-오사카-동대사-청수사-오사카성-고베

대만

4일

제주-부산-타이베이-화롄-태각로-아류-양명산온천-국립고궁박물관

홍콩

4일

제주-인천-홍콩-해당공원-리펄스베이-빅토리아산정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5일

제주-인천-싱가폴-버탐섬-조호바루-센토사섬

필리핀

5일

마닐라

제주-인천-마닐라-팍상한폭포-따일화산-히든벨리

인도

8일

인도/젠지스

제주-인천-델리-젠지스강-황금사원-타지마할

베트남

5일

베트남북부/하롱베이

제주-인천-하노이-하롱베이선상유람(세계문화유산)-땀꼭

호주

6일

시드니

미주

미동부

미서부

케나다

유럽

8일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한투어전문 판매대리점

JR투어

일정 및 견적문의
TEL. 748-2002

담당: 문인관 [일어일문학과졸업]
H.P: 010 - 4693 - 2394

제이알투어(주) 제주시 연동 2312-1, 국외여행업등록 94호, 제주의 토종기업, 34년 전통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해외여행, 국내여행, 렌트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



무론유설

신용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강정마을은 전쟁 중이다. 공사를 강행하려는 해군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다 사법처리를 당한 주민이 이미 40명이 넘었고 영화평론가 양운모씨는 공사 강행을 저지하다 구속이 되자 목숨을 건 옥중 단식을 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대도민 호소문을 통해 죽음을 각오하고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무엇 때문에 강정마을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자체가 아무런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건설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①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하고, ② 입지선정이 적정해야 하며, ③ 선정과정의 민주적이어야 하고, ④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은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첫째, 국가 안보상 필요성에 대해 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대양해군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안해군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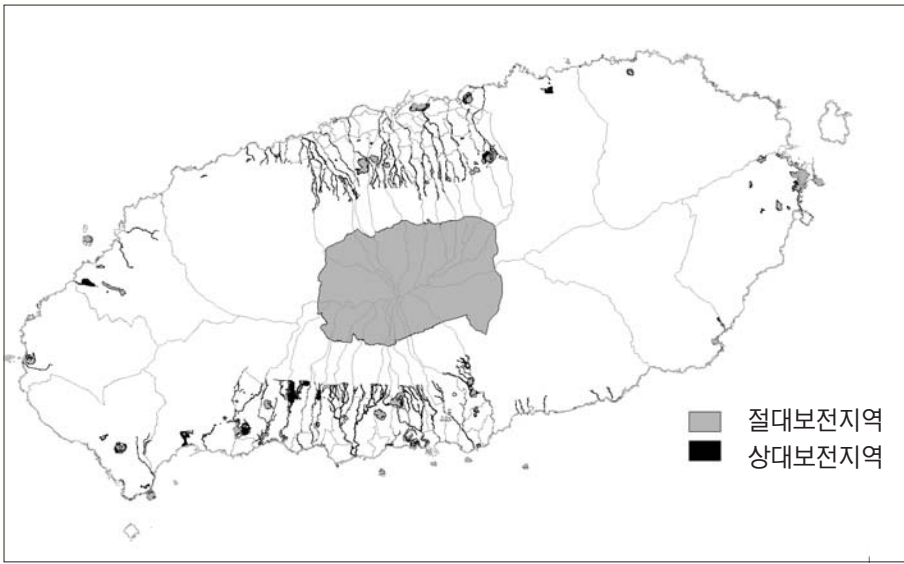
다. 그리하여 일각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 안보사업이 아니라 군 내부에서 자체 세력 확장과 이익 도모를 기하려는 해군의 몸 불리기 사업에 불과하다고 질타하고 있다.

둘째, 입지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보면, 강정 앞 바다는 세계적 희귀종과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또한 강정해안가는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답다고 평평이 나 있는 올레7코스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곳을 매립하여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가 있는가.

셋째, 선정과정의 민주성에 대해 보면, 2007년 4월 26일 해군과 도지사에 의해 희유된 마을회장이 80여 명의 주민들을 모아 마을임시총회를 열어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8월 20일 강정마을 주민투표에서 총 72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80명이 반대했다. 투표자의 94%가 반대할 정도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해군은 주민들이 유치를 원했으므로 그에 따라 입지를 결정했다고 강변을 하며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넷째, 법과 절차의 준수에 대해 보면, 강정 해안가는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총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며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을

제주해군기지, 무엇이 문제인가



도내 절대·상대보전지역, 해군기지 건설로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면 절대보전지역은 어디든 개발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된다.

이론다. 그럼에도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버렸고, 법원은 강정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은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하며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판결을 했다.

다섯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기여에 대해 보면,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면 일본 우익세력의 군국주의와 중국의 팽창주의를 부추기면서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주는 물론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은 군사력 확장이 아니라 동북아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에 있다.

그럼에도 해군은 기만과 강압으로 점철된 채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공권력의 횡포에 불과하다. 제주는 국가권력의 횡포로 인해 수많은 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던 4·3의 아픔이 있는 곳이다. 그런 제주 땅에서 다시 공권력의 횡포로 강정주민들이 희생되고 제주의 평화와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4·3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세계 시민을 위한 ‘문화광장’

폭탄이 나치의 무기실험이었다는 걸 고발하기 위해 ‘게르니카’를 그리면서 예술가의 철학과 정치력을 살펴본 파카소의 이야기를 전해 주고, 개그맨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유명 배우들을 섭외하며 대작의 영화를 만든 웅기와 도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들려주며 함께 박수를 치게 했다. 모차르트와 미켈란젤로가 역사에 남긴 가치와 세종대왕의 창의성을 비교 설명하면서 긴박한 국제 정세와 천년을 바라보는 역사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대학교는 학생들의 정서와 감성을 세다듬어 주기 위해, 삶의 가치와 인간의 존재 이유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 본 강연을 개설했으리라 확신한다. 물론, 불요불급하게 느껴지지 않고, 나중에 해도 충분한 거라고 여겨질 수 있는 ‘문화광장’을 운영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도 아껴야 하고, 일부 교수들은 반대를 하기도 했을 것이다. 여러 부서와 담당자들 간에 갈등과 충돌도 있었을 것이며, 보다 높은 차원의 강의를 진행하고 탁월한 강사들을 섭외하느라 힘든 점도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느껴야 할 기쁨과 행복의 원천을 알게 해 주고 느끼

게 해주고, 대학생이 지녀야 할 문화와 교양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대학 정책에 찬사를 보낸다.

최근 지나친 학점 경쟁과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최근 자살하는 학생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다. 이유와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대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개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만 하고 경쟁만 하는 대학생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 봉사과 인내, 아름다움과 슬픔 등을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 감정과 감성을 자극하고, 교양과 문화수준을 높여 주는 강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지고, 사회의 가치관은 혼란스러워지며, 지도층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현실의 영향도 크지만, 어려서부터 윤리와 도덕, 철학과 논리, 글쓰기와 수사학 등을 골고루 배웠더라면 자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산수와 돈, 권력과 명예만은 아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며 아름다움을 느낄 줄도 알고, 옛 성현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일 줄도 알고, 충동적인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인내도 필요한 법이거늘 너무나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밖에 모르는 슬픔은 안타까운 일

이다.

대학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면, 일단 휴학부터 하고 좀 쉬었다가, 정 힘들면 다른 대학교로 편입학을 할 수도 있고, 중퇴를 한 후, 다른 직업을 선택해도 좋으련만, 어찌 그렇게 탁월한 청춘들이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어떻게 들어간 학교를 자퇴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친구들에게도 창피하고, 집안 어른들에게도 볼 낯이 없었겠지만, 이 어찌 죽음보다 더 하겠는가? 유연한 사고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머리만 최고가 아니라 가슴도 따뜻한 포용과 배려의 마음을 가르치는 학교는 있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할 따름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기술과 재력만이 중요하고 권력과 재능만 필요할 게 아니다. 문화와 교양, 직업에 대한 철학과 신념,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을 함께 아우를 수 없다면 미래 성장과 일류 국가는 요원해진다.

선진 시민의 문화의식과 교양의 함양을 위해 너무나 아름다운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제주대학교 당국과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기고

홍석기
서울디지털대학
컴퓨터교수

풀 냄새와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제주대학교 캠퍼스로 들어서는 순간, 살아 있음에 대한 감사와 찬탄을 감출 수가 없었다. 400여명의 학생들이 짙 들어찬 강당으로 들어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 어른들도 군데군데 보였다. 제주 시민과 학교 교직원들이라고 한다. 학점을 반영하는 학생들의 교양 강좌 프로그램에 외부 사람들도 참석해서 들을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교양과정은 ‘문화광장’이었다.

문화, 예술, 교양 등의 다채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학기 중에는 네 번의 음악과 무용, 연극 등의 공연도 있다고 한다. 인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펙도 중요하고 취직과 면접 전략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인생의 희을 가능하게 하는 대학생활은 깊이 있는 학문과 의미 있는 낭만이 어우러진 가치를 발견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강단에 섰다.

스페인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에 쏟아진

사회통합의 첫걸음, 대학부터

독자기고



4.27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상대방 후보 들끼리의 정책적 비판이 아닌 맹목적 비난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자원봉사라는 명분하에 유출한 개인신상정보를 토대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자원유세장에서 ‘박탈’로 표심을 끄는 등의 모습은 ‘이전투구’(泥田鬪狗) 그 자체였다.

이 모습을 보며 지난해 총학생회장 선거가 떠올랐다. 우리대학교의 선거 또한 4·27 재·보궐선거 못지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출신지역부터 시작되어 출신 초·중·고등학교를 따지고 어느 단과대학인지를 따지는 등 인맥을 위주로 한 ‘관당선거’의 끝을 보여주었는데 타지에서 자라온 나에게는 너무나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총학생회와 단대에서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들로 내 한가했던 휴대폰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자신의 견해를 알릴에 처음엔 기뻐했지만 이내 “또?” 하는 짜증으로 변하고 말았다. 나를 어떻게 알고 전화나 문자를 해오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돌아오는 건 공백한 변명뿐이다.

내 주위에는 가장 연락이 오지 않는 팀에게 투표를 한다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은 이유들로 구성원들의 참여가 낮아지고, 갈등이 생기고, 대학을 비롯해 지역,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선거만이 이런 것은 아니다. 지도층이 제몫을 하지 못하는 것부터, 한 때 큰 이슈가 되었던 대학시간강사제도, 지자체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등 끝없이 우리는 갈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위원회를 출범하여 대학시간강사처우 개선 등 다분야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일들을 해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참여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무관심 때문이 아닐까?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학생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큰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경만한다고 생각만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다기를 이번 선거에서는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과거를 씻어내고 정책과 후보자의 자질로 승부하는 대학생다운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최종일(관공경영3)

배려 절실한 기숙사 문화

독자기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학생생활관, 그런 생활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다.

생활관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공간으로써, 학생들에게 ‘제 2의 집’과 같은 곳이다. 그런데 자신의 집처럼 편안함을 느껴야 할 생활관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

생활관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군데군데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컴퓨터실, 휴게실 등 공공시설에도 ‘음식물 반입 금지’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파자봉지, 음료수 캔 등 음식물을 먹은 흔적들이 종종 보인다. 금지사항을 무시하고 뒷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세탁실에서 빨래는 다 끝났는데 옷가지들은 세탁기 속에 방치돼 있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다. 가끔은 밖에서 누군가 과성을 질러서 잠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생활관 곳곳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는 문구들이 있다. 하지만 문구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

은 이를 무시한 채 자기의 편리만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행태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압적인 문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보다는 더 실질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감압적인 문구대신 부드러운 설득력있는 문구를 사용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문구를 보완해 줄 다른 제재방안을 만든다든지 등, 학생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다른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유도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대학생 그리고 지성인으로써 너무나 당연시하게 이행돼야한다. 그리고 기숙사는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기숙사생 전부를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금 이 기숙사관 공간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분명 이런 폐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한 기숙사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자.

오소진(전자공학1)

동문칼럼

긍정적인 사고, 낙천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후배님으로부터 동문칼럼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내가 과연 칼럼을 쓸 자격이 있는지 망설여진다. 적어도 칼럼을 쓰려면 이름 석자만 들켜어도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술 한잔 살만한 호주머니가 두둑한 사람도 아니다. 더욱이 글쓰는데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딱히 내세울만한 것이 없지긴 인생의 선배로서 용기를 내어 써본다.

먼저, 저를 소개하면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중앙당에 공채로 근무하다가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함에 따라 특별채용으로 1991년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전문위원이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전문위원이란 국회처럼 의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있다. 지방자치법(제59조)에 의하면 자치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각종 의안(조례·예산·결산·동의·청원 등)에 대하여 자료수집·조사·연구를 통해 검토보고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사시 보고함으로써 의원님들의 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나름대로 의회의 목적이 도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염두에 두면서 양심에 거리를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처음 근무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후배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인 대학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낭만도 좋고, 사랑도 좋고, 정열도 좋고, 운동도 좋다. 다만, 졸업 후의 직업도



강흥철(행정학과 78학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가정환경과 적성 등을 잘 파악해서 졸업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 학창시절에 나름대로 도서관을 기웃거렸던 학우들이 졸업후에 취업이 안된 사람을 만나 본적이 없다. 조성필 LH공사, 하민철 도의회의원, 전호충 변호사, 김정민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나름대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중단하지 아니하며, 중단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아니한다”라는 글귀를 가끔 되새겨 보곤 한다.

그 다음에 인생을 항상 긍정적인 사고(Positive Thinking), 낙천적인 마음(Optimistic Mind), 감사하는 마음(Thankful Heart)으로 살았으면 한다.

“집이 가난해도 내보다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 내가 일이 많아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두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두 손이 있어 부드러움을 만질 수 있으며, 두 발이 있어 자유롭게 가고픈 곳을 갈 수 있고, 마음이 있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라는 글귀가 생각난다.

“다른 사람 지적에 귀 기울여야”

CEO에게 듣는다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최하는 ‘CEO에게 듣는다’ 일곱 번째 강좌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공과대학 4호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좌에는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는 삼성 SMD의 부사장을 역임한 정호균씨가 ‘Present and Future of AMOLED Technology’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정 전 사장은 제주를 자신의 제2의 고향으로 표현했다. 그는 “한국전쟁 때 제주도 피난을 와 어린 시절을 제주에서 보냈다”며 “비록 힘들고 어린 시절이었지만 제주에 대한 애정이 아직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그저 피난민의 자제였던 자신이 나름 성공을 해 이 자리에 서자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정씨는 AMOLED(능동 화소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씨는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예로 정 전 사장은 ‘아폴로 프로젝트’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줬고, AMOLED도 그러한 성공을 이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케네디 대통령은 그 시절에는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던 달에 가겠다는 꿈에 과감히 투자했다”며 “결국 인류가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AMOLED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CEO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 말



정호균
삼성 SMD 전 부사장

에 기울여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어떤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지는 데는 다양한 분야가 함께 상호작용 한다”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씨는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은 그 물건의 가치를 다르게 한다”며 “그 차이가 브랜드 상품과 일반 상품을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기원했다. 정씨는 “마틴 루터 킹은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꿈을 가지고 도전했다”며 “우리로 항상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을 발전시키고, 세계를 변화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역설했다.

강보배 기자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학내외 이슈에 대한 주장,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등 자유주제로 글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대학과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신문에 게재된 독자기고에 대해 원고료 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press@jeju.ac.kr입니다.

톡톡 튀는 발상으로 돈없는 대학생 설움 돌파한다

가난한 대학생, 캠퍼스 생존게임

지난 2월 한 중앙지에 인터넷에 떠도는 '자취 대학생 십계명'이 게재됐다. 학교의 공공비용을 훔쳐 쓰라는 식의 내용에 네티즌들은 탄식했다. “대학생의 탈을 쓰고 반대 노숙자의 라이프스타일로 기생적 삶을 영위하라는 말 아니냐”.

그러나 생존투쟁에 내몰린 대학생들에게 원리원칙만 강조하기에는 현실은 너무나 짝박하다.

송시연 (해양산업경찰2)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방학은 물론 학기 중에도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주독야경(晝讀夜耕)파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작년 방학 내내 애플공장과 교과서 배달 업체에서 일해야 했다. 요즘도 학교수업이 끝나면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번다.

“부모님께서 학비 대주시는 애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사실은 저도 방학 땀 한 달 정도만 일하고 한 달은 여행 가고, 그렇게 보내고 싶었는데.”

제주대 캠퍼스만의 풍경이 아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대학생 10명중 9명이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35.3%) 기회가

되면 할 계획(57.6%)이라고 한다.

외부 업소보다 급절로 저렴한 교내 학생식당 가격표에도 아래턱이 떨려거리는 가난한 제주대 학생들. 오늘도 열심히 그리고 공부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알뜰살뜰한 소비생활을 쫓아가 보자.

배고픈 대학생의 식비절약

도시락을 싸고 다니자
전지현 (해양토목공학2)씨는 올해부터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물가도 오르고 학생회관 밥도 비싸져서, 돈 아끼기 겸 한 번 두 번 싸오다 보니까 좀 귀찮기는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근데 여름 되면 반찬이 빨리 상할 텐데 걱정이예요.”

일일이 아침마다 도시락 싸기 번거롭다 싶어도 자기 전에 밥은 냉동실에, 밀폐용기에 넣은 밀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얼린 밥이나 냉동 음식을 해동할 땐 교내 한라홀이나 아라홀, 중앙도서관 휴게실의 전자레인지기를 이용하면 된다. 혹 여유가 생겨 요리를 만들고 싶을 땐 여름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물기가 생기는 재

료를 가끔씩 피하고 음식이 완전히 식은 후 담도록 하자.

편의점 폐기 음식을 활용하라
고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도 같은 아르바이트가 있으니, 그 이름 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이다. 1년 3개월 짝 짝 근처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태현(해양산업3)씨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다”며 “음식도 음식인데 일이 별로 바쁘지 않아서 주말에 TV 보고 시험기간엔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폐기음식을 얻기 위해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재고 정리 시간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싸먹을 할 수

공부에도 알뜰정신이 필요

있다.

교재는 물려받아야
그대로 내리치면 무기가 될 법한 두꺼운 전공서적들, 모양새 만큼이나 가격도 만만찮다. 일일이 새로 구입하기보다 과 선배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것이 힘들다면 제주대 홈페이지 생활게시판의 '아나바다 장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라. 학기말이나 학기 초엔 종종 교양 및 전공서적이 헐 값에 판매된다. 책을 구한다고 먼저 글을 올려도 좋다.

학교를 활용하라
수능이 끝났는데도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비 지출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차라리 학교에서 주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교내 기관인 외국어교육원과 국제교류센터에서는 학기 중은 물론 방학 때도 무료 혹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의를 운영한다. 또 그 중에서는 수강생들에게는 해외연수 및 장학금,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제주대학교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자.

정규교육 외에 교내 학습동아리나 스터디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내에선 다양한 이학스터디 그룹이 종종 편성된다. 주로 제주대 홈페이지 아라광장 자유게시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신과 조건이 맞는 곳이 없다면 직접 그룹을 조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달 나가는 버스비도 절약하자

제주는 동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
지구와 제주도를 사랑하는 당신이기에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이, 대중교통보다 자전거가 어울릴 것이다. 하지만 캠퍼스가 산 위에



그래픽=김은실 수습기자

있으니 결국 당신에게 도보 이외의 선택지는 남아있지 않다. 어디 멀리 취재하러 갈 것도 없이 가자 본인의 노하우(?)를 공개한 다.

기자는 작년에 기숙사에서 시청까지 6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했다. 처음엔 2시간 정도 걸렸지만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나중엔 1시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됐다. 식사량을 늘려도 2달에 8kg이 빠지더라.

최근엔 제주대병원 근처 자취방에서 걸어서 등하교하고 또 주말엔 시청까지 걸어서 출퇴근한다. 약쪽 다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 교통비는 물론이요 헬스비 걱정도 물론 없다.

혹 경사 탓에 다리가 과하게 튼튼해질까 봐 걱정된다면 '뒤로 걷기'에 도전할 만하다. 뒤로 걷기는 반대 방향의 운동이어서 신체 앞부분으로만 움직이는 발목, 다리근육, 인대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한다. 또 발 앞쪽이 먼저 지면에 닿기 때문에 무릎으로 전해지는 충격이 적어 관절이 약한 사람에게도 좋다. 제주대로 통하는 중앙 도로는 길이 직선형이므로 방향감각 상실 및 장애물로 인한 부상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공짜로 즐기는 문화생활

캠퍼스를 거닐자
돈 먹는 문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솔로만 한 게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도(?) 이미 사랑스런 내 남이 계시다면 최대한 돈 안드는 데이트를 궁리해보도록 하자. 경험 많은 CC(캠퍼스커플) 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그냥 캠퍼스에서 노세요.”

아름답기로 소문난 제주대 캠퍼스, 비록 몇몇 구간은 낭만적인 산책로라기 보단 뼈를 불사르는 등산로라는 게 문제지만 곳곳에 음료(자판기)도 있고 물(정수기)도 무료로 공급되니 이만한 데이트장소가 없다.

선배 식사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안먹었는데!

또 캠퍼스 내 아라뮤즈홀에서 종종 무료공연이 열리니 약속을 잡을 때에는 <http://aramusehall.com/>에서 공연일정을 파악해놓도록 하자.

정 밖으로 나가야겠다면, 커플 솔로 할 것 없이 젊은이들이 여가를 위해 가장 먼저 향하는 장소가 바로 영화관일 것이다. 칠성동 구 코리아극장 자리에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무료극장이 운영되고 있다. <http://www.jejumedia.com/>에서 상영 목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개봉영화를 보고 싶는데 돈이 없다면? CC 1년차가 되어가는 최운정(전산통계2)씨와 이태현씨는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한 달까지 불사하는 혈맹커플이다. 또 편의점 영수증을 모아놨다가 이벤트에 한꺼번에 응모하여 영화표를 얻기도 한다.

“작년엔 스키장도 당첨됐었어요!” 운정씨가 행복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 투혼. 어찌 서바이벌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으리요!

김은실 수습기자

재미있는 경제 도서

△ 한국의 e짚돌이(이보슬)
간단한 생활 속 절약 노하우를 집대성한 실용서
△현영의 재테크 다이어리(현영)
20살부터 재테크를 시작한 방송인 현영의 솔직담백한 경제에세이
△20대 경제생활 첫걸음(양석조 외), 20대, 독립해서 1억 만들기(김호준 외)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을 위한 경제인생 가이드
△20대 여자가 꼭 알아야 할 돈 관리법4(이지연)
20대 여성을 위한 경제 지침서



출고 배고프다..

그래픽=김은실 수습기자

문단인선

제39회 '제대미전'

제39회 예술학부 작품전 '제대미전'이 오는 10일부터 4일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제대미전'에서는 미술학부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준비한 한국화, 서양화, 조소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화 36점, 서양화 48점, 조소 27점 등이 전시된다.

영주어문 21집 발간



영주어문학회(회장 김병택 교수)는 최근 '영주어문' 21집을 발간했다.

'영주어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21집에는 '한국의 지역어와 지역문학'에 관한 특집 논문 7편 등 총 16편이 게재됐다. 특히 특집 논문들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영주어문학회 하반기 전국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로 구성됐다.

하음플루트오케스트라 공연

하음플루트오케스트라의 '사랑의 합동 연주회'가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부터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비롯해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K.550 1st, 비틀즈 모음곡, The Phantom of the Opera(오페라의 유령) 등이 연주된다. 관람료는 무료.

문예회관 무료영화 상영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오는 17일부터 2일간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다.

입장은 선착순이며 방영시간은 오

후 7시 30분부터이다.

17일에는 추창민 감독의 '그대를 사랑합니다(2010)', 18일에는 이준익 감독의 '평양성(2011)'이 상영된다.

여러분들이 제주의 미래입니다!

한라산소주는 젊은이들이 제주의 미래이며 희망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제주대학 발전기금을 통해 우수교수를 지원하고 우수학생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소주는 이제껏 한결같이 '기업이익(企業利益)의 사회환원(社會還元)'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제주 도민을 위한 지역 발전성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리정의창조

2006년 대한민국 우수 특산물 대상
2007년 대한민국 우수 특산물 대상
2008년 세계주류품질대회(WSC) 은상 수상
2009년 한미아세안 특산물협회의 공식인증주

한라산물 순한소주

(주)한라산